

현대 인도네시아 선거정치에서 이슬람조직의 경쟁과 협력 :

나흐다똔 올라마와 무함마디아를 중심으로*

강 영 순**

I. 서 론

인도네시아 현대정치의 선거과정에 있어서 1955년 선거부터 2004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총선¹⁾을 치러온 인도네시아는 1999년 이후에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97년 경제위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분출된 민주화 물결에 의해 32년간 장기집권을 해 온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이 1998년 5월 권좌에서 물러난 것이 선거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의 일환으로 100여 개의 정당들이 결성되었지만 정당의 자격요건을 갖춘 48개 정당만이 공천을 받고 그 외의 정당들은 단순히 당 조직체계만을 갖춘 형태로 존재하거나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1999년 총선을 통해 민주주의 정권이 확립되었다. 반면에 2004년 총선시엔 24개 정당이 참여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 직접선거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BM3010).

** 한국의국어대학교 마인어과. sayakang@hotmail.com.

1) 1945년 독립이래로 2004년까지 1955년, 1971년, 1977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1999년, 2004년에 걸친 아홉 차례의 총선이 시행되었다.

가 실시됨으로 민주화의 면모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러한 선거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슬람 공동체이다. 그러한 사실은 선거캠페인시 각 정당에 대한 지지의 형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선거캠페인이 진행될 시에는 이슬람교도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슬람 정당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 특히 정부 여당에서 이슬람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이슬람 사원들에 대한 후원, 이슬람 조직들에 대한 후원 등 이슬람 단체들을 통한 득표를 위해 여러 가지 유화정책을 펴 나가기 때문이다. 인구에 비례해서 무슬림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반 화란 민족주의 운동에 이슬람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시에 정치에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치에 이슬람 세력이 주요 부분을 점유하게 된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사상 선거시마다 무슬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을 결성한 이슬람 조직들을 제외한 기타 정치조직들은 이슬람 조직들과 연계하여 지지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9년 선거에서는 그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정치엘리트들의 세대교체를 도모한 첫 민주선거였기 때문이었다. 이슬람신학자들을 통해 구성된 이슬람 조직의 정당을 집중 지지하였던 사실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리더쉽 변화를 염원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에 2004년 선거에서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양 이슬람 조직의 참여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 개체간의 관계를 중시함으로 투표행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조직들의 선거참여는 모든 정당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슬람조직, 즉 ‘이슬람신학자들(올라마)의 부흥’ 혹은 ‘이슬람신학자들(올라마)의 각성’이란 의미를 지닌 나흐다똘 올라마(NU,

Nahdlatul Ulama)²⁾와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들’ 혹은 ‘무함마드의 순나를 지향하는 주의’ 등의 의미를 지닌 무함마디아(Muhammadiyah)³⁾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거대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이슬람 조직들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러한 양대 조직은 전통주의집단과 현대주의집단을 대표하기도 한다. 전통주의 이슬람조직은 이슬람교리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인 뽀뽀뽀산뜨렌을 운영하는 이슬람신학자인 울라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대중기반을 지니고 있는 NU가 대표적이다. 꾸란과 하디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이슬람법학체계를 수용하는 부류이다. 반면에, 현대주의 집단은 순나(무함마드의 관행)를 지향하고 이슬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슬람개혁운동에 편승하여 조직된 무함마디아가 그 대표적이며 대다수 서구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꾸란과 하디스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 복지활동, 민주주의 및 인권 등 사회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동시에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평적인 집단이다. 양대 조직이 형태의 상이성을 지녔지만 모두 교육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점과 조직의 인물들을 통해 각 조직의 무슬림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이 양대 이슬람 조직의 정치참여는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늘 주요이슈가 되어왔다. 종교조직으로서의 상이성도 있지만 양 조직 모두 정치에 적극성을 띠었으며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 왔기 때문이다. 초기에 이루어진 선거시엔 양 조직이 한 정당조직 속에 동일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협력의 양태보다는 각 이슬람 공동체의 이익

2) NU는 4천만 명 이상의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다(DPP PKB 2000: 38-39). ‘Nahdlatul’의 인도네시아어식발음은 ‘나흐들라뿔’이지만 아랍어에 가까운 발음으로는 ‘나흐다뿔’이다. 따라서 ‘Nahdatul’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NU 자체에서는 조직명을 ‘Nahdlatul Ulama’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표기법으로 한다.

3) 무함마디야는 3천만 명 정도의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다(Iwan Badillah 2006/07/01).

을 위하여 전형적인 권력의 속성을 보임으로 끊임없는 불일치를 보여 왔지만 진정한 민주화의 서막으로 인식되는 1999년 대통령 선출 시엔 양 조직의 협력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04년 대선시엔 각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가통합을 내세우며 각 러닝메이트와 함께 현저한 경쟁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지 양 조직이 초기의 정치참여형태와는 다소 상이하게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을 통해 결성된 정당들을 조직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양대 이슬람 조직의 정치참여 배경은 어떠한지? 참여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대선시에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두 조직은 어떠한 유사점을 보였는지?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출발도 동일했던 두 이슬람 조직 내에서 결성된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1999년 대통령 선출과 2004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NU와 무함마디아의 정치참여 배경 및 양상

인도네시아 이슬람 조직의 정치참여는 1912년 정치적 기반위에 조직된 이슬람연합(SI, Syarikat Islam)을 통해 반 화란 민족주의 운동 및 정치에 참여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그 전신은 1911년에 결성된 이슬람무역연합(SDI, Syarikat Dagang Islam)이다. 이러한 SDI는 인도네시아이슬람연합당(PSII, Partai Syarikat Islam Indonesia)의 전신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무슬림들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초기 민족주의를 이끌어 왔던 SI는 내부분열로 인해 인도네시아공산당 등 여러 정당들을 파생시켰다. 1912년에 창설된 무함마디아의 일부 구성원들은 SI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였으며 1926년

에 창설된 NU, 그리고 PSII와 함께 1945년에 창당된 인도네시아무슬림협의회인 마슈미(MASYUMI, Majelis Syuro Muslimin Indonesia)에 연합함으로써 의회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조직이 되었다. 1945년 독립이후 인도네시아중앙협의회가 잠정적인 국회역할을 수행하다가 1950년 8월에 내각책임제를 규정한 공화국잠정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는 내각책임제에 의한 의회정치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조직들은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정치참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통주의 이슬람조직인 NU와 현대주의 이슬람조직인 무함마디야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정치참여를 하게 되었다.

양 조직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첫째, 식민지시대이다. NU와 무함마디야 등은 창설 당시엔 화란의 식민통치하에서 적극적인 반 식민 활동을 지속해 나갔지만 화란의 탄압과 감시로 인해 정치적 요소로서의 이슬람은 1920년 후반기부터 그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내부분열로 인해 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또한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의 인도네시아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 1927년에 창당) 등과 같은 민족주의 조직들에 의해 정통주의 이슬람세력들은 결집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통치후엔 일본이 자국의 승리를 위해 이슬람지도자들을 회유하여 공동운명체 의식을 무슬림 사회에 확산시킴으로 화란 식민지 배시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둘째, 수카르노정권시인 구질서기이다. 1945년에 전통주의 이슬람 집단을 대표하는 NU와 현대주의 이슬람집단을 대표하는 무함마디야와 현대주의에서 파생한 급진주의이슬람 조직들이 연합하여 이슬람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당한 마슈미는 1950-1955년 의회민주주의 초기의 국회선거시에 49석(Feith 1963: 345)이나 확보하였으나 PSII의 탈퇴(1947), 그리고 NU의 종교성장관직의 획득 실패

로 인해 마슈미 내부의 NU와 무함마디야 양 이슬람 조직이 분열되고 -당시 월로포내각의 주요직위를 마슈미가 무함마디야 구성원들을 후원하여 획득했기 때문에 NU가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함- 그로 인해 1952년에 NU는 탈퇴하여 자체 정당을 결성함으로써 마슈미의 결집력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1955년 선거(Feith 1957: 74-75)에서는 마슈미가 57석으로 20.9%, NU가 45석으로 18.4%를 차지함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NU는 주요부문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NU가 마슈미에서 탈퇴한 이후에 무함마디야의 정치적 세력 또한 저하되었다. 제2차 내각인 알리 사스트로아미조요(Ali Sastroamidjojo II)내각시엔 이슬람정당 출신 장관 9% 중에서 1%만이 무함마디야 출신으로 정치적 지위는 급격히 저하되었다(Ghazali 2005: 247). 무함마디야의 정치적 세력이 저하되자 1959년 총회이후에 마슈미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Syaifullah 1997: 212-214; Ghazali 2005: 247-248). 그 당시 마슈미가 1958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RI, Pemerintah Revolusioner Republik Indonesia)반란에 동조함으로써 인해 “반란과 분열의 당”(Samson 1968: 1001)으로 낙인이 찍혔고 마침내는 1960년에 합법적인 정치분야에서 제거되었으며 그로인해 무함마디야는 몇 개 이슬람조직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무슬림당(Parmusi, Partai Muslimin Indonesia)을 창당하여 정치참여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교도민주주의시기(1957-65)부터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갔다. 비이슬람정당들의 이슬람세력저지 활동, 반정부활동, 내부분열, 이념대립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수하르또정권시인 신질서기이다. 수하르또정권이 들어선 이후엔 이슬람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더욱 더 심해짐으로 두 조직의 정치참여 기회는 점점 더 감소하였다. 백베이에 따르면, “1970년 중

반경에 친서방 수하르토 정권은 이전의 수카르노 친북경정부가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이슬람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규제함으로써 종교의 정치적 역할은 변화하였다”(McVey 1984: 199). 직능집단을 통한 군의 정치참여로 인해 군부의 세력은 점점 강화되는 반면에 여전히 이슬람국가건설에 집착하고 있다고 인식받는 이슬람정당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어갔다. 군부는 이슬람정당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국가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인 **판자실라(Pancasila)** - 전지전능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 인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를 당 강령으로 수용하게끔 하고 여당인 직능집단(Golkar, Golongan Karya), 개발통일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인도네시아민주당(PDI, Partai Demokrasi Indonesia) 등 3개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 판자실라의 다섯 가지 중 가장 으뜸인 ‘전지전능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종교에 대해 강압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제반사항을 종교와 관련시키는 이슬람 정치세력의 극대화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1973년 1월 5일에 네 개의 이슬람 정당, 즉 Parmusi, NU, PSII, 이슬람교육연합(Perti, Persatuan Tarbiyah Islamiyah) 등이 합병이 되어 PPP를 결성하게 된다. 수하르토 정부의 탈 이슬람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당합병으로 PPP의 이슬람 색채는 열어지게 되었다. PPP내에서 가장 큰 세력인 NU에 대한 군부의 내부분열도 조장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78년 PPP총재직을 맡은 나로(J. Naro)를 비롯한 PPP 핵심지도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어 진행된 군부의 정치적 전략이다. 나로는 NU로 하여금 국회 의석수 감소를 중용하고 선거후보자 명단도 NU지도자들의 자문없이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정부에 철저히 협력한 인물이다. 이러

한 요인들이 NU가 사회및 종교활동에 전념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에 PPP를 탈퇴하게 된 근본원인이 된다. 정당합병으로 인하여 PPP를 통한 이슬람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이 현저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무슬림 공동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이 전달되어 국가정책의 하나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수하르또 정권시에 시행된 선거체제는 국민들의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한 정부형태의 기본골격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혁시대이다. 1998년 수하르또 장기집권의 종식으로 인한 민주화의 열기가 이슬람조직을 포함한 수많은 조직들로 하여금 정치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을 결성하게 하였다. NU와 무함마디아도 무슬림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정책으로 입안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과 민주화를 성취하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동안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장에서 떠났던 NU도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정치적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조직 구성원들이 민족각성당(PKB, Partai Kebangkitan Bangsa)을 창당하였다. 나시르(Nashir 2000)에 따르면, 무함마디아 또한 국가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세력균형과 추진력을 위한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다른 인물들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체계적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자각함으로 무함마디아 조직내에 개방정당인 국민수권당(PAN, Partai Amanat Nasional)을 창당하게 되었다. 양 정당이 각 조직명의 정당은 아니지만 양대 조직의 원로들을 포함한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정당으로 인식되며 각각 자체 조직망을 선거에 연계시켜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양 정당을 통하여 1999년 선거에서

는 NU의장이었던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일명 구스두르(Gus Dur)라 호칭함, 이하 ‘구스두르’로 표기)⁴⁾가 대통령으로, 무함마디아 의장이었던 아민 라이스(Amien Rais)는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대통령 직접선거인 2004년 선거에선 NU 의장인 하킴 무자디(K.H. A. Hasyim Muzadi, 이하 ‘무자디’라 표기)는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총재인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Magawati Soekarnoputri, 이하 ‘메가와띠’로 표기)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으로 무함마디아 의장이었던 아민 라이스는 PAN 총재로 있다가 대통령으로 입후보함으로 개혁시대의 정치적 행보도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이전의 선거양태와는 너무나 다른 경쟁 및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로 개방된 경쟁을 보임으로 민주주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1999-2004년 회기엔 국회의석이 462의석이었는데가 2004-2009년엔 559의석으로 늘어나면서 NU와 무함마디아를 포함한 이슬람정당들의 참여도 더 활발해졌다. 개혁시대 초기에 결성된 대표적인 이슬람 정당들은 PKB, PAN, PPP, 월성당(PBB, Partai Bulan Bintang), 정의당(PK, Partai Keadilan), 이슬람민중당(PUI, Partai Umat Islam), 민중각성당(PKU, Partai Kebangkitan Umat)등으로 그 중에 가장 큰 지지세력을 지닌 정당은 NU를 대표하는 정당인 PKB와 무함마디아를 대표하는 정당인 PAN이다. NU와 무함마디아 구성원들이 정당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기반을 통해 무슬림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었다.

4)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는 '와히드'로 호칭되는 동시에 일명 '구스두르(Gus Dur)'라고도 불리운다. 본문에 나오는 살라후딘 와히드(Salahuddin Wahid)는 그의 동생으로 호칭에 혼선 및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압두라흐만 와히드를 '구스두르'로, 살라후딘 와히드를 '와히드'로 표기한다. 살라후딘 와히드는 솔라후딘 와히드(Solahuddin Wahid)라는 표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III. 대통령 선출을 통해서 본 NU와 무함마디아의 경쟁 및 협력

1999년엔 NU 의장인 와히드가 NU 구성원들로 창당된 PKB를 기반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무함마디아 의장인 아민 리스는 역시 무함마디아 구성원들로 창당된 PAN을 기반으로 국회 최고기구인 MPR 의장으로 선출되어 함께 정치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협력의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2004년 선거에서는 전형적인 경쟁의 선거행태가 보여진다. 대선의 과정 속에 양 조직이 보여준 선거행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1999년 대통령 선출을 통해서 본 참여 형태

인도네시아 1999-2004년 회기의 1999년 선거에서는 수하르토의 장기집권이 종식된 후에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쟁과 정당들간의 연합양태가 현저한 양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NU와 무함마디아간의 협력형태는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을 볼 수 있다.

1999년 선거의 득표결과를 본다면 PDI-P가 33.74%로 단연 우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능그룹당(Partai Golkar, 이하 Golkar로 약칭)⁵⁾ 22.44%, PKB 12.61%, PPP 10.71%, PAN 7.12% 등의 순서이다 (KPU, 2000). 이중에 PDI-P와 Golkar를 제외한 세 당은 모두 이슬람 정당이다. 그 중 NU의 PKB와 무함마디아의 PAN이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득표율로만 본다면 당시 국회

5) 1964년에 결성되어 수하르토정권시에 사용하던 'Golongan Karya(직능집단)'는 정당이란 단어인 'Partai'를 넣어 'Partai Golongan Karya(Pgolkar)'로 명칭이 변경됨. 1998년에 수하르토가 권좌에서 물러난 뒤 1999년 선거를 앞두고 개혁시대에 부합되게 정당이란 명칭을 덧붙임. Partai를 빼고 여전히 Golkar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의석 중 36%인 153석을 점유하여 가장 득표율이 큰 정당이었던 PDI-P총재인 메가와띠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당시 네 번째 순위인 12.61%에 달하는 51석을 차지한 PKB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와히드, 즉 당시 NU 의장이었던 구스두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뽀로스똥아(Poros Tengah)⁶⁾에서 구스두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당선이 되게끔 한 사실과, PAN이 국회의석 중 7%인 34석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민 라이스가 국민협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된 사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1999년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각 정당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NU의 구스두르가 무함마디아의 아민 라이스로부터 집중적인 대통령 출마 권유를 받은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상 초유의 협력 형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처음엔 구스두르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NU측에서는 당시 ‘민족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위치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둘째, NU는 어떠한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먼저 스스로 입후보하지 않는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구스두르는 알라(Allah)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출마를 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NU가 얼마나 자신들의 전통을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NU총회는 구스두르를 공식후보로 추천을 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팀 15(Tim 15 KPU)’는 그 추천을 수용하지 않았다. 구스두르는 NU의 구성원들이 창당한 PKB의 구성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

6) 뽀로스 똥아(Poros Tengah)는 ‘중심축’이란 의미로서 ‘개혁파(Fraksi Reformasi)’의 의미도 지닌다.

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PKB는 NU의 구성원들이 창당을 한 것이 지 NU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는 논리하에서 결정된 문제였다. 그로인해 NU 산하의 청년조직인 안소르청년운동(GP Ansor)단체는 선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구스두르를 4천만 NU 무슬림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와히드를 거부하는 것은 NU 전체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와히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해체하라”⁷⁾라고 요구하기까지 구스두르를 지지했다.

이와같이 구스두르는 GP Ansor뿐만이 아니라 무함마디야를 포함한 여러 계층으로부터 1999년 대통령후보의 핵심인물로 지목을 받고 지지를 받았다. 무함마디야가 NU측의 구스두르에 대해서 보인 협력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NU에 대한 무함마디야측의 로비활동

정기국민협의회개최 이전에 무함마디야 구성원들이 창당한 PAN의 총재인 아민 라이스는 당시 NU 의장이었던 구스두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 뿌로스똥아(Poros Tengah)를 통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Poros Tengah는 당시 최대정당들이었던 Golkar와 PDI-P를 의식하여 그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연합을 한다면 두 정당보다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하에 나온 발상이었다. 특히 NU와 연합을 한다면 그 힘은 더욱 더 클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최우선 타겟으로 NU의 이슬람신학자들인 올라마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올라마들에게 자주 호의를 베풀면서 권유 및 설득의 형태를 취하였다. 구스두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예배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아

7) “Brigade Muslim Siaga, Banser Menjaga Kiai”, Tempo(1998/11/16).

민 라이스가 “*Gus Dur is my big brother*”(Suharsono 1999: 88)라고 까지 한 사실에서 Poros Tengah를 중심으로 하여 아민 라이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Poros Tengah측 중에 메가와띠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 메가와 띠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ulama들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도 주 요요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민 라이스는 ulama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동부자와 랑잇판의 압둘라 파끼(K.H. Abdullah Faqih)방문과 서부자와 찌르본의 압둘라 압바스(K.H. Abdullah Abbas)방문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가끔 이슬람교리학습이란 명목으로 아민이 방문하여 와히드를 대통령 으로 추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 아민 라이스는 랑잇판 등 동부자와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이슬람 지도자들을 권유하였다. 동일한 목적으로 아민 라이스의 PAN을 비롯한 Poros Tengah 구성원들도 NU의 종교지도자들을 권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바와시에르(Fuad Bawazier), 라자사(Hatta Rajasa), 함디(Al'hilal Hamdi) 등 아민 라이스측 구성원들은 자주 와히드의 거처를 찾아가 와히드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의도는 와히드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가 되게끔 하는 데 있었다.

랑잇판과 찌르본 모임을 살펴봄으로 아민 라이스측의 절실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8월 31일 파키가 운영하는 뿐독쁘산뜨렌 랑잇판 뚜반(Pokdok Pesantren Langitan Tuban)에서 NU측 ulama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그 당시 아민 라이스를 대신하여 바와시에르와 이스마일(Nurmahmudi Ismail)이 참석하여 모임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ulama들에게 와히드를 대통령으로 추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와 수하르토는 아방안이고 하비비 대

령은 이슬람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정한 산뜨리 이슬람, 즉 와히드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⁸⁾. 여기에서 ‘아방안’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와 이슬람의 한 형태로서 토속신앙과 자와문화 위에 이루어진 이슬람으로 자와식 이슬람교도를 이룰 때 사용된다. 순수한 정통 이슬람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띤다. 반면에 ‘산뜨리’는 전통적인 이슬람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이르기도 하지만 쿠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교리에 충실한 정통이슬람을 신봉하는 신실한 무슬림들을 이른다.

그 모임이 있는지 얼마되지 않은 9월 중순에 찌르본 모임이 개최되었다. 아민 라이스는 끼아이 압바스가 운영하는 뿐독 뽀산뜨렌 분뻏(Pondok Pesantren Buntet)에서 올라마들과 모임을 가졌다. 찌르본 모임시에 아민 라이스는 30여 명의 올라마들이 모인 자리에서 “와히드를 대통령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절함을 표시했다. 그때 그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메가와띠와 하비비의 지지자들 사이에 동족전쟁이 발발할 직전에 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와히드밖에 없다”⁹⁾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마들은 아민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끈질긴 무함마디아측의 권유에 마침내 와히드를 Poros Tengah의 대통령후보로 허용하였다.

올라마들 외에도 안소르 청년운동단체와 무함마디아의 청년단체도 연합하여 대대적인 이슬람교리 집회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었다. NU와 무함마디아간에 협력과 화합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연합하여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염원하에서 구스두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로비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8) K.H.Muchith Muzadi(2001/06/08).

9) K.H.Muchith Muzadi(2001/06/08).

(2) 성 차별의식에 대한 이슈화

1999년 선거시에 여성대통령후보를 거부하는 정치행태가 NU와 무함마디야 구성원들 중에서 나타났다. 최다수의 득표를 한 PDI-P 총재인 메가와띠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성 대통령후보를 거부한 것이다.

NU의 원로 이슬람지도자들과 일부 올라마들은 “여성 지도자는 이슬람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지않다. 여성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여성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종교적 이슈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U의 일부 올라마들 중에서는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메가와띠를 지지함으로써 찬·반 대립이 있었다.

그러한 형태는 무함마디야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아민 라이스 자신도 거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메가와띠의 능력을 문제삼았다.

여러 개의 이슬람 조직 혹은 반목관계에 있는 이슬람정당의 결정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gender' 과 'antigender'란 용어가 생겨나기까지 했다. 그 상황은 Poros Tengah가 구스두르를 대통령으로 지지할 당시에 생겨난 것이며 무함마디야는 NU의 이슬람 지도자들과 이슬람정당들을 중심으로 여성대통령 지도력에 대한 반대표명을 이슈화한 것이다.

그러한 이슈는 다음 몇몇 인물들의 비평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부디만(Arif Budiman)은 메가와띠의 조용한 성격과 능력부족을 지적했고, 레프(Daniel Lev)는 “메가와띠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게 내버려둬선 안된다”(Panji Masyarakat 1999/08/11)고 하였다. 또한 파따(Eep Sayfullah Fatah)는 “메가와띠의 지도력은 봉건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한 특징은 메가와띠가

대중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메가와띠의 지도력은 주변에 무성한 얘기들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한 외에도 루히앗(KH. Ilyas Ruchiat)은 “많은 울라마들이 거부한다”고 했으며 PPP 또한 함자 하스와 자르카시 누르를 통해 메가와띠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Suharsono 1999: 53-54).

이와같이 무함마디야가 NU측에 대한 로비와 메가와띠에 대한 비평의 전략을 쓰면서까지 구스두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실은 비록 구스두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항상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현대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모든 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1999년 대통령추대시에 정치엘리트들로부터 지목의 대상이 되었고 373표를 획득함으로써 313표를 득표한 메가와띠를 앞서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함마디야는 협력의 형태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의 입지를 굳혀놓기 위함이며 정책입안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협력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2004년 대선을 통해서 본 참여 형태

NU의 한 지도자를 대통령의 권좌에 앉히기 위해 상호협력과 로비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여성지도력을 비평하는 방법 등으로 1999년 선거에서 최다수의 득표를 한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의 메가와띠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아민 라이스는 강력하고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로 poros tengah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정치적 전략을 썼다.

그것은 정기 국민협의회(MPR)의 헌법 메카니즘을 통해 구스두르를 탄핵하는데 성공했으며 또 헌법메카니즘을 통해 메가와띠로 하

여금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사실을 의미한다. 제스(Jass 2005)는 “만일 반목행태를 실제정치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적 양상은 회색빛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흑백의 성격을 띠 수는 없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해관계뿐이다’라는 역사적인 격언이 옳다.”라는 표현과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정치반목은 무함마디아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주 이용하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무함마디아가 보여준 최정점에 도달한 정치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메가와띠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끝나고 인도네시아 여섯 번째 인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2004-2009년 회기의 2004년 대통령선거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선거로서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1999년 대통령 선출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참여하여 독특한 면모를 보인 선거로 볼 수 있다. 대선 후보 및 선거를 통해 그러한 양상을 살펴보고 양대 이슬람조직의 대표, 즉 NU측 후보와 무함마디아측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양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NU와 무함마디아측 후보들의 득표양상

2004년 선거는 NU와 무함마디아 양대 조직 의장의 대선출마, 즉 NU 의장인 무자디는 부통령으로, 전 국민협의회 의장이었던 무함마디아의 아민 라이스는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NU의 와히드 부통령후보와 위란또(Wiranto) 대통령후보가 의장인 무자디와 경합을 벌임으로 인해 무자디와 와히드에 대한 NU 지지율이 분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무자디는 NU와 PDI-P, 번영평화당(PDS, Partai Damai Sejahtera)의 지지를 받는 반면, 와히드는 NU와 PKB, 민족중심활동당(PKPB, Partai

Karya Peduli Bangsa), 인도네시아민중부흥통일당(PPNUI, Partai Persatuan Nahdlatul Ummah Indonesia), 빨찌실라에국당(Partai Patriot Pancasila)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2004-2009년 회기의 2004년 선거는 개발통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네 쌍의 대선후보들 모두 각각 연합정당을 구성하여 입후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면모를 갖춘 경쟁의 형태를 보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PDI-P의 메가와띠 대통령은 NU 의장인 무자디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대선에 출마하였다. 직능그룹당의 위란또 대통령 후보는 NU의 부의장중 한 사람인 와히드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출마하였다. 반면에 무함마디야 PAN의 아민 리스는 시스워노 유도 후소도(Siswono Yudo Husodo)를 부통령 후보로 하여 대통령후보에 출마하여 민주당(PD, Partai Demokrat)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odhoyono, 이하 ‘유도요노’라 표기)는 유숀 깔라(Jusuf Kalla, 이하 ‘깔라’로 표기) 사회복지조정장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대선에 출마하였으며, PPP의 함자 하스(Hamzah Haz)는 아굼 구믈라르(Agum Gumelar)를 부통령후보와 경합을 벌였다.

2004년 7월 5일에 실시된 1차 투표시엔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유권자수 118,656,868 명 중에 메가와띠-무자디는 26.6%, 위란또와 와히드 러닝메이트가 22.15%, 그리고 아민-시스워노는 14.65%를 득표하였다. 그 중에 NU지지기반으로 하는 무자디-메가와띠 러닝메이트와 무함마디야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아민-시스워노 러닝메이트는 양측의 득표 차이가 12%에 달한다. 또한 NU 부의장인 와히드-위란또 후보가 22.15%에 달할 수 있었던 것도 와히드의 지지기반이 NU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표 1> 제 1 차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득표율(2004년 선거)

대통령-부통령 후보자명	득 표 수	비 율 (%)
유도요노-갈라(SBY-Kalla)	39,838,184	33.57
메가와띠-무자디(Megawati-Muzadi)	31,567,104	26.61
위란또-와히드(Wiranto-Salahuddin Wahid)	26,286,788	22.15
아민-시스워노(Amien-Siswono)	17,392,861	14.66
함자-아굼(Hamzah-Agum)	3,569,861	3.01
합 계	118,656,868	100.00

출처: 2004년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위원회.(재구성)

* 무자디와 와히드는 NU측 후보, 아민은 무함마디아측 후보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당선될 수 있는데 1차 투표에서 유도요노-갈라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차 투표시에 2위였던 메가와띠-무자디와 1위였던 유도요노-갈라를 놓고 재투표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비추어 본다면 메가와띠-무자디가 63,257,851 표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유도요노-갈라는 48,163,204 표를 얻음으로 메가와띠-무자디가 단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Legowo et al. 2005: 80). 실제와 추정의 차이를 입증한 좋은 표본이었다. 만일 약 35,583,483 명의 미 투표자들의 표를 메가와띠-무자디가 확보를 하여 득표수와 합산한다면 52.78%로 추산하였다. 그러한 비율은 유도요노-갈라보다 더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차 투표시엔 메가와띠-무자디가 정당을 구성한 후에 시행한 것으로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유권자 114,257,054 명중 메가와띠-무자디가 39.38%, 유도요노-갈라가 60.62%를 득표함으로 연합정당구성을 통한 다수득표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다.

<표 2> 제 2 차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득표율(2004년 선거)

대통령-부통령 후보자명	제1차 투표	비율 (%)	제2차 투표	비율 (%)	1차와 2차 득표율 변화
메가와띠-무자디 (Megawati-Muzadi)	31,286,788	26.61	44,990,704	39.38	(+)11,703,516
유도요노-칼라 (SBY-Kalla)	39,838,184	33.01	69,266,350	60.62	(+)29,428,166
합 계	118,656,868	100.00	114,257,054	100.00	

출처: 2004년 대통령 선거, KRT - CSIS.(재구성)

메가와띠-무자디는 Golkar, PDI-P, PPP, PDS, 개혁성당(PBR, Partai Bintang Reformasi), PKPB, 인도네시아무산주의국민당(PNI-Marhaenisme, Partai Nasional Indonesia Marhaenisme) 등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에, 유도요노-칼라는 펜클럽, 노동자계층에서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합이 2004년 8월 28일, 9월 1일, 14일 세 차례(*Kompas* 2004/08/28; *Kompas* 2004/09/02; Legowo et al. 2005: 79)에 걸쳐 결성하여 범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됨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추어 본다면, 무함마디아의 PAN과 NU의 PKB를 제외한 이슬람 정당들이 연합정당으로 할 경우 24%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만일 PAN과 PKB를 포함한다면 42%가 될 것으로 추론되며 이러한 수치는 1999년에 비해서 34%가 더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선거는 이슬람법인 샤리아(Syaria)법 지지율은 23%에 머물렀다 (Legowo 2005: 137). 2004년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은 이슬람법인 샤리아 캠페인의 영향이 아니라 각 정당이 부정부패를 반대하고 민족 단결, 민주주의, 개혁, 교육, 사회복지 등을 내세우는 캠페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2004년 선거는

노선우선에서 국가와 민족우선의 공약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후보들에 대한 비관론

2004년 대선에 즈음해서 대두된 몇 가지 비관론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비관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첫째, 대선프로그램, 사상, 팜플렛, 비전, 임무 등의 요소들은 복합적인 양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이상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의 위기는 과거 구정권의 유산, 즉 사회경제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다. 둘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일관성있는 민주주의와 개혁주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근본적으로 민족운동에 관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민 라이스는 일부계층에 의해서 개혁주의 인물로서 인정을 받는 동시에 또 다른 부류는 개혁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진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메가와띠는 PDI-P 당원들과 대중매체의 격렬한 지지로 성장해온 야당세력이라는 점과 수하르토 정권에 대해 싸워온 심볼로서만 간주될 뿐이라고 하였다(Legowo 2005: 196-197). 무함마디아의 아민 라이스는 개혁을 위해 투쟁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인식을 받게 되었다. 한편, NU의 무자디도 민주주의와 개혁운동에 동참한 근거가 없으며 러닝메이트인 메가와띠 또한 부친인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같은 카리스마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대선후보들이 장기집권한 수하르토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 실현, 국민복지, 개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서 기인된 것이다.

IV.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NU와 무함마디아의 유사점

1. 이슬람집단과 민족주의집단간의 갈등

2004년 선거는 이슬람집단과 민족주의집단 간에 이데올로기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띠었다. 대다수의 입후보들이 이슬람교도인데 이러한 구분을 한 이유는 역사적인 근거를 기초로 한다. 1929년 이후 서구교육을 받은 엘리트와 주요 정치세력들, 즉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의 PNI와 같은 조직들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통치계급에 있었던 아방안 무슬림 세력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근거로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자와 이슬람의 한 형태인 아방안은 토속신앙과 자와문화 위에 이루어진 이슬람으로 자와식 이슬람교도를 가르키며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주의자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종교보다도 민족통합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집단이다. 반면에 이슬람집단이라고 한 것은 정통 무슬림들로 구성된 이슬람조직을 지칭한다. 이슬람집단은 이슬람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슬람 교리에 기초한 국가관을 염원하는 이슬람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정당을 매개체로 하여 이슬람공동체를 확립해 나가려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이와같이 뚜렷이 대별되어지는 양상은 권력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들 간에 마찰을 유발할 수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쳤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국가 장래를 위한 공동안을 내어놓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강조하기 때문이다(Legowo

2005: 114). 그러나 2004년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기본개념을 탈피하여 민주주의와 국민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대선승리를 위해 위란또와 와히드, PDI-P의 메가와띠와 러닝메이트인 NU의장 무자디, 무함마디아 PAN의 아민-시스위노, 민주당의 유도요노-갈라, 그리고 PPP의 함자-아굼 등 대선 입후보자들은 아래의 <표 3>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상이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표 3> 대선후보들의 이데올로기 구분

공천 정당명	이슬람후보	민족주의자후보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	하심 무자디 -부통령후보-	메가와띠 수까르노 뿌뜨리 -대통령후보-
직능그룹당(Partai Golkar)	살라후딘 와히드 -부통령후보-	위란또 -대통령후보-
민족수권당(PAN)	아민 라이스 -대통령후보-	시스위노 유도 후소도 -부통령후보-
개발통일당(PPP)	함자 하스 -대통령후보-	아굼 구믈라르 -부통령후보-
민주당(PD)	유숴 갈라 -부통령후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후보-

출처: 2004년 대통령선거, KRT-CSIS.(재구성)

이와같이 대선후보 러닝메이트들은 이슬람과 민족주의간의 구분이 확연한 집단 간의 연합을 결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 이슬람교리에 바탕을 둔 국가건설을 염원하는 정통 무슬림들로 구성된 이슬람 양대 조직인 NU측의 무자디와 살라후딘 와히드, 그리고 무함마디아측의 아민 라이스, 이슬람 조직들로 이루어진 PPP의 함자 하스, 이슬람

정당인 월성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깔라 등은 모두 이슬람집단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이다. 반면에 메가와띠, 위란또, 시스위노, 아쿰, 유도요노 등의 후보자들은 모두 민족주의 집단을 배경으로 한 후보자이다. 이러한 상이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러닝메이트로 구성이 된 것은 소속집단의 성격만을 강조하는 한 정당에서 나온 후보만으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각 정당 지도자들의 판단아래 연합정당을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2004년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간의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표출되었다. 특히 각 정당들은 경제적 불균등, 빈곤, 실업률, 부정부패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중심이슈로 활용하였다.

사이후딘(Achmad Fedyani Saifuddin)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내어놓은 측은 정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은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후보를 내어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일깨웠다. 위란또-와히드가 첫 번째 유세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갈등 때문이었다. 메가와띠-무자디와 SBY-JK에 밀렸던 이유는 Golkar의 정치적 수뇌부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NU의 PKB는 위란또-와히드를 승리케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지니고 있었다(*Republika* 2004/07/12). Golkar 총재인 악바르 탄중(Akbar Tandjung)이 당내에서 위란또-와히드를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로 내어놓지 못한 이유로 인해 Golkar와 위란또와의 관계나 PKB와의 관계는 종결이 되었다. 악바르 탄중의 Golkar는 '이제 막 결성된 민주당(PD)은 개혁의 주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Kompas* 2004/09/08)'고 판단하고 PDI-P와 연합을 하여 메가와띠-무자디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Suara Karya* 2004/09/08). 이와같은 정당간

의 갈등은 상호경쟁하는 위치가운데 각각 승리를 위한 염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형태로 비쳐진다. 2004년 대선후보자들은 각기 사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들이었으므로 갈등의 소지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자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강력한 지지집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대선 캠페인시엔 유권자들의 득표를 위해 정당간의 경쟁은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 종교이데올로기 집단, 민족주의 집단, 군 집단, 종족집단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양대 이슬람 조직외의 다른 대선후보들도 모두가 이슬람을 기본지지 조직으로 두고 있다. 그들은 각기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거캠페인시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직망을 재점검하고 경쟁에 대비하였다. 각 후보들이 후원조직을 만들고 대중매체를 이용하며 영향력있는 공무원들과의 협력 등의 방법으로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이 차츰 증대되었다. 아민 라이스 센터, 메가 센터 등도 이에 속한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해서도 각 후보자들이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대비해 나갔다.

따라서 군 장성출신인 위란또와 NU의 와히드 러닝메이트가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위란또는 유도요노보다 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유도요노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위란또-와히드는 수하르또 전 대통령이 지녔던 네트워크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운 집단및 정당 즉, PKB, PKPB, PKPI, 기업가들, 민영및 공영기업들, 그리고 전문인들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였다(Legowo 2005: 185-186).

정치평론가인 나즈(Enceng Sobirin Nadj)와 사회평론가인 빠라소요(Imam B. Prasodjo)는 대선후보에 대한 대중조직의 지지는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그러한 지지가 종족, 종교 혹은 기타 사

회집단의 이름을 내세우는 원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상기시키기도 하였다(*Republika* 2004/06/17). 그러한 형태는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집단간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NU와 무함마디아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조직들 또한 가부장적인 성격, 종교, 종족, 지역 등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갈등의 소지는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슬람집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자디와 와히드, 아민 라이스, 함자 하스, 깔라, 그리고 민족주의 집단을 배경으로 한 후보자들인 메가와띠, 위란또, 시스워노, 아꿍, 유도요노 등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사한 전략을 세운 것이다. 즉, 다른 정당과의 연합 혹은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비정당의 인물영입,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정당과, 세속주의 정당은 동일한 세속주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한 결속을 하는 동시에 상이한 이데올로기 집단과의 연합을 도모한 것은 각 정당이 다수의 득표를 위하여 나온 발상이다.

그동안 이슬람과 민족주의 집단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상 지속적으로 대별되어 옴으로 인해 항상 정치분열의 주체가 되어왔지만 2004년 대선에서는 연합하는 형태를 보였다. 정당간의 갈등형태에 이르는 문제 중 이데올로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실행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민족주의자 혹은 세속주의자끼리 연합을 한다면 이슬람 집단은 대표되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민족주의집단의 대다수가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족주의자집단은 종교계층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는 세속주의 민족주의자와 이슬람계층간의 연합을 촉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인물이 이슬람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지 혹은 민족주의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에펜디(Bachtiar Effendy)에 따르면 “국가지도력에 있어서 민족주의자와

이슬람의 연합제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선출될 지도력이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정치적인 심리일 뿐이다”라고 하였다(Mesia Indonesia 2004/4/24). 그의 의견과 거의 동일하게 사닛(Arbi Sanit)은 “민족주의정당과의 연합은 현대 이슬람계층에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급진주의 이슬람집단에겐 그러한 형태의 정당연합은 문제시된다. 급진적 이슬람집단은 국가지도력을 대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즉 후일에 그들은 세속주의 국가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실망감에서 급진주의 계층은 강력하고 격렬한 적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Suara Karya* 2004/4/29). 이와같은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집단간의 연합은 서로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기 힘든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NU측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녔다. NU는 동부및 서부자와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집단을 중심으로 득표활동을 벌였다. NU 후원집단들은 무자디의 러닝메이트인 메가와띠와 와히드의 러닝메이트인 위란또가 모두 민족주의자로서 세속주의 집단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운영어진다는 인식과 이슬람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실행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력에 대한 신뢰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NU측의 무자디가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무함마디야는 아민 라이스가 대통령으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NU와 같은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아찌와 중부자와를 중심으로 각 지방간의 지지망을 형성하여 경쟁에 임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프로그램이나 공약보다는 그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기본 요소들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주민들의 지지향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슬람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와의 갈등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종교, 교육, 사회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던 NU와 무함마디아는 실용주의와의 갈등을 나타낸다. NU와 무함마디아는 2004년 대선을 통해 이슬람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대선후보인 무자디와 와히드, 그리고 아민 라이스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NU의 무자디와 러닝메이트인 메가와띠 사이에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면서도 실용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NU내부에서는 이슬람종교와 교육 및 사회활동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더 정치적 색채가 짙어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슬람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실제정치무대 영입의 필요성도 자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2004년 대선시엔 권력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성과 이슬람이란 종교적 이념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단결을 하였다.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격차는 실제적인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아민-시스위노 후보에 대한 변영정의당(PKS, Partai Keadilan Sejahtera)의 지지를 통해 잘 나타난다. 무함마디아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개방정당인 PAN의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아민과 몇 개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당과 농민, 어부, 노동자계층과 밀접한 세속적 계층에 의해 지지를 받는 시스위노를 의미한다고 물칸(Abdul Munir Mulkhan)은 말하고 있다(*Republika* 2004/07/07). 현대주의 집단간의 몇몇 집단은 이슬람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시스위노의 실행과 성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다. 살림(Arskal Salim)에 따르면 “그러한 의구심은 시스위노가 이슬람조직 영역에서 활동했

던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Media Indonesia* 2004/7/2). 그러나 시스워노 러닝메이트는 최소한 70개의 이슬람 대중조직의 지지와 자카르타 아궁 알 아샤르(Agung Al Azhar) 광장의 이슬람 인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한 지지는 그들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이슬람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Republika* 2004/06/12). 것처럼 이슬람 공동체가 후보들의 배경을 중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대 이슬람 조직이 이슬람의 근본이데올로기, 종족, 지역 등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들을 통해 종교는 단순히 득표를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흑색선전, 상호비방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대선 유세시에 물리적인 폭력을 부를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2004년 양대 이슬람 조직의 대선 후보들은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입후보자 러닝메이트간에 각각 상이한 이데올로기, 상이한 사회문화 및 종교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를 충족시키는 실용적 프로그램을 지향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된다.

데니(Denny JA)는 “흑색선전은 데이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상모략에 근거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유세시에 각각 경쟁을 위해 상호비방 한다면 문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증상모략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수도 있다“(Suara Pembaruan 2004/07/05)라고 긍정적인 면도 제시하였다.

선거감시위원회(Panwaslu) 위원인 무니르(Rozy Munir)에 따르면,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제2차 대선 유세시에 최소한 7개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7개 지역은 동부자와 인근지역, 동부자와 전지역, 남부 술라웨시, 깔리만판, 수라까르따, 자까르따 등의 지역이다. 그 외에도 갈등의 근원이 된 것은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정치, 종족, 경제, 분리주의 등의 문제들이었다(*Koran Tempo* 2004/09/02). 그러한 충돌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메가와띠-무자디 혹은 위란또-와히드는 제2선거 유세시엔 가담하지 않았다. PDI-P와 NU측 모두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 급진주의로 인한 격렬함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다(*Kompas* 2004/5/10). 양측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희생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종교이데올로기, 종족, 지역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슬람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간의 갈등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득표를 위한 주된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3. 성 차별의식에 대한 이슈화

2004년 선거역시 1999년 선거와 유사하게 성별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첫 번째 대선 유세시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가 대통령 직접선거를 앞두고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종교정치 이슈가 대두되었다. 여성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금기시된다는 종교적 이슈였던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직면하여 극렬한 이슬람집단은 유권자계층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세력으로 비쳐졌다. 다섯 쌍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슬람법에 근거한 이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팀은 거의 없다고 인식되었다. 게다가 첫 번째 대선 유세에 즈음하여 메가와띠와 유도요노를 선출하는것은 금기라

고 권유하는 이슬람운동 조직의 결정이 나타났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메가는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우선 배제대상으로 지목했다(Arskal Salim, *Media Indonesia* 2004/07/02).

현대정치에 있어서 이슬람 이데올로기중 성 문제를 이슬람 정당 및 조직들의 경쟁과 협력을 위해 부각시킨 것이다. 메가와띠 대통령 후보와 NU 의장인 무자디 부통령후보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재 부각되었다. 무함마디아의 PAN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민 라이스 후보와 개발통일당(PPP)의 함자 하스, 그리고 NU의 부의장인 와히드 등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1999년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 신랄하게 비평을 했던 인물들이다.

또한 다수의 NU 이슬람 지도자들, 특히 빠수루안(Pasuruan)소재 PKB소속 올라마들은 여성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NU회원들에게 있어선 금기시되는 법이라고 권고하였다. 한 사람의 여성이 지도할 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하디스에 대한 문자상의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금기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야기시켰다. 그러한 하디스 외에 QS An-Nisa'¹⁰⁾ (4):34에는 '남성은 여성의 지도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엔 지도자가 성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재능과 역량에 좌우된다(*Koran Tempo* 2004/06/04). 이처럼 성별에 대한 문제는 단지 해석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U와 무함마디아의 원로들은 여전히 여성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타개해 보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함마디아는 2004년 발리총

10) An-Nisa'는 '여성의 장'을 의미한다. Al-(n) Nisa'라고도 쓰며 본문에는 'An-Nisaak'으로 표기되어진다.

회에서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꾸란과 순나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 즉 이슬람교리에 대한 참된 해석을 찾기 위한 움직임 보여 주었지만 여성대통령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성들의 취약점은 선거에서 항상 정치 엘리트들의 득표를 위해 활용되어 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이 지도자로 선출됨에 있어서도 항상 소외되고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해 온 것은 사회적인 요인들과 그에 따른 선입견이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에 비해 리더쉽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들은 여성유권자들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여성대통령 입후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여성지도자의 취약점을 이슈화한다면 그만큼 다른 정당들의 남성후보자들에게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슈는 1999년엔 NU와 무함마디아간에 또 각 정당끼리 하나의 협력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2004년 선거에선 NU 의장인 무자디를 대신 러닝메이트로 택한 여성후보 메가와띠에 대해서 무함마디아 PAN의 아민 라이스와 여타 이슬람 지도자 후보에게 있어선 경쟁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NU 내부에선 협력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듯 2004년 선거에서도 역시 성차별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4. 내부분열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NU 내부분열은 패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NU 구성원들 중에는 메가와띠-무자디 쪽으로 옮겨간 회원들이 많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이슬람교육기관들과 N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핵심구성원들, 특히 자카르타지역, 찌르본 등지에 있는 회원

들은 전적으로 메가와띠-무자디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동부자와에 있는 NU회원들은 위란또-와히드쪽으로 지지를 하였다(*Republika* 2004/05/25).

그러한 현상은 NU내에선 와히드 전 대통령측과 하심 무자디(Hasyim Muzadi)측의 분열, 그리고 와히드의 부통령입후보 등으로 표가 분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NU 내부분열 중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은 NU의 구스두르와 무자디의 분열을 들 수 있다. 1999년 선거에서 NU의 구스두르가 대통령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신체장애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선거를 앞두고 PKB가 구스두르를 대통령후보로 제안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3년 헌법 23조 6장에 기록된 ‘대통령과 부통령 입후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조항이 갈등의 소지가 된 것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구스두르와 선관위는 갈등이 생겼다(Legowo 2005: 191). 그러한 갈등은 동부자와에 소재한 방일(Bangil)광장에서 투표용지를 불사르는 의식을 정점으로 하는 연합기도회 모임을 개최하는 시위 형태를 보였다. 연합기도의식은 선관위를 비난하는 모임으로 변하였다(*Suara Pembaruan* 2004/05/27). 따라서 구스두르가 선관위에 의해 대통령후보등록이 거부된 사실은 현대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인 대중매체를 통해 2004년 대선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비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NU 구성원들간의 갈등 형태로 나타났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는 NU회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다.

아리 크리스띠아나와띠(Ari Kristianawati)는 PKB 득표의 핵심

인물인 구스두르와 NU총회를 움직이는 무자디간의 갈등요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무자디는 더 이상 구스두르의 정치야심을 그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자디는 초기에는 구스두르에 의해 NU총회의 의장이 되었지만 총회 외부에서 일어난 이권경쟁에 대해선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다. 무자디는 NU총회의장으로 가장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구스두르의 지시에 굽히기를 원치 않았다. 둘째, 구스두르의 지나친 주관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그는 무자디를 양육하여 총회의장이 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무자디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동시에 PBNU조직은 그의 정치적 염원을 위한 지지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Suara Karya* 2004/05/12).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무자디가 PDI-P의 메가와띠가 제안한 부통령후보를 수락했을 당시에 NU내부에서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그러한 항의는 추종자들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로인해 NU내부의 갈등양태는 더욱 더 심화되었고 구스두르와 압둘라 파키의 주도 아래 무자디가 NU내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공포함으로써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가와띠에 의해서 영입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무함마디아의 아민은 PAN총재로서 무함마디아의 임원진들과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동원에 성공하여 많은 구성원들을 국회로 진출시키는 중심인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또 장차 아민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 적극성을 띠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내부의 한 측은 정치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실망을 한 반면에,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측은 무함마디아가 정계 진출을 위한 도구로 희생을 당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PAN은 개혁시대에 다급하게 이루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큰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PAN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무함마디아의 젊은 층이 새로운 정당인 무함마디아수권협회

(PAM, Perhimpunan Amanat Muhammadiyah)를 2005년 3월 9일에 결성하였다(Hakim 2005: 243). 이 조직은 아민-시스위노의 대선득표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함마디아의 연합에 올무가 되고 무함마디아의 근본정신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내부분열은 NU와 무함마디아 양 조직이 모두 경험한 사실로서 상호간의 경쟁이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5. 선거법 위반

우선 메가와띠-무자디의 선거법 위반을 들 수 있다. 메가와띠와 무자디측의 남부 수마트라 선거운동시에 종교부장관인 사이드 아길 알무나와르(Said Agil AlMunawar)도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캠페인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부장관과 메가와띠, 그리고 무자디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Kompas 2004/06/09). 39조 4항 하반절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캠페인시에 국정이외에는 휴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당시 ‘대통령과 부통령후보는 정부수뇌의 공직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구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Legowo 2005: 192). 이처럼 선거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지만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매스컴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04년 8월 19일에 7개 정당 -Golkar, PDI-P, PPP, PDS, PBR, PKPB, Partai PNI-Marhaenisme- 으로 구성된 연합정당이 불균형의 표상이었던 수하르트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당들이라는 것. 둘째, 선거추진운영위원들의 지도력 부족. 셋째, 금권선거 등을 들고 있다. 금권선거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지역은 남부 수마트라, 서부 수마트라, 반다 아쨬, 시대아르조, 끈다리, 사롤랑운, 서부자와, 르박, 가룻, 보고르, 옥야까르따, 캄빠르, 찌르본, 서부 소순다열도, 시말롱운, 수라까르따, 데벙, 방가이 등 18개 지역이다(KRT-CSIS 2004: 82-84). 이러한 요소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NU부의장인 와히드와 러닝메이트인 위란또가 발견한 위반 사항은 15가지에 달한다. 그 중 재투표와 관련한 2004년 7월 3일 날짜로 되어있는 선관위 회람(No.1151/15/VII/2004)발행 -그 회람에는 투표용지의 제목에 구멍을 뚫으면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록됨-, 양식위조, 유권자 카드 오용, 일요일 선거캠페인 은폐, 유권자에 대한 협박, 불일치한 유권자 통계, 권력남용 등을 들고 있다(Bisinis Indonesia 2004/07/24).

한편, 무함마디아의 아민-시스위노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다. 표를 계수할때에 일부 후보의 표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사용, 선관위 No 1151 회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Bisinis Indonesia 2004/07/24). 선관위 No.1151 회람은 투표용지 접지부분 문제, 잉크의 품질문제, 투표용지 가장자리에 선이 그어지지 않은 투표용지 발행, 득표수의 늘임과 줄임, 득표 조작 등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의 능력부족으로 지적받았다(*Media Indonesia* 2004/07/26). 투표용지에 한번 이상 찍더라도 적법화된다고 기재된 No.1151을 발행함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Anas Urbaningrum, Bisinis Indonesia 2004/07/08). 이러한 문제들은 선관위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위란또-와히드와 아민-시스위노에 의해 표결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무함마디아의 아민-시스위노에겐 외부적 요인이 작용함으로 득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각 연합정당

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Golkar당 또한 연례총회를 통해 위란또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함으로써 다른 대선 후보들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2004년 대선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경쟁구도의 변화는 민족구원당(Poros Penyelamat Bangsa)을 통한 이슬람에 기초한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아민 라이스의 실패를 더 앞당긴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해 초기이슈의 구도가 바뀌었다. 즉, 초기에 이슈화되었던 이슬람-민족주의자와 자와-비자와 이슈¹¹⁾가 이제는 정치변동이슈와 군-민 이슈에 더 근거를 두는 형태로 변화했다. 대선후보들 중 세 명, 즉 위란또, 아굽 구물라르, 유도요노 등이 모두 군 장성 출신이다(Legowo 2005: 198-199). 반면에 그 러닝메이트들은 모두 민간인 출신들이다. 따라서 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유도요노-깔라에 비해 메가와띠-무자디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악바르 탄중, 함자 하스, 자이누딘(Zainuddin MZ) 등이 메가와띠측에 연합함으로써 메가와띠-무자디 후보는 그 힘이 더하여졌다. 반면에 유도요노-깔라는 군 출신들이나 군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아민-시스위노의 표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이슬람 연합을 시발점으로 하여 민족주의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이슬람 조직들 중 나흐다똘 울라마(NU)와 무함마디아는 정치 참여의 출발이 동일했으며 장기집권을 한 수하르또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각 소속 구성원들에 의한 정당결성을 통해 이슬람 공동체의

11) 마아릴(Ahmad Syafi'i Maarif)에 따르면 “자와-비자와 문제는 대통령과 부통령후보에게 고려되어지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Media Indonesia 2004/04/26).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목표로 각각 민족각성당(PKB)과 국민수권당(PAN)을 결성하여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참여하였다. 초기의 정치참여와는 다르게 조직내의 구성원들을 통해 정당이 결성되어 조직의 지지를 동반하였고 양대 이슬람 조직의 최고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 최고 권력을 점유했다는 사실은 1999년 선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무함마디야 PAN의 아민 라이스는 최고의결기구인 국민협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고, 무함마디야의 PAN을 선두로 하여 여러 정당들과 연합하여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한 결과 NU의장 구스두르는 대통령으로 추대된 형태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양 조직이 협력의 형태를 보임으로 인도네시아 이슬람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쳤다.

이와같이 1999년 대통령 선출시에 보여준 NU와 무함마디야의 상호협력은 개혁시대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협상과 합의였다. 이슬람 역사상 NU와 무함마디야 상호간에 협력의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항상 상호비방, 경쟁 등으로 점철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더 이슬람 조직간의 협력을 염원해서 나타난 정치참여형태가 1999년 대통령선출이다.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현저하게 작용하였으며 종교지도자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9년 대통령선출은 종교적인 면이 중시되고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밀접한 관계가 현저하게 작용한 동시에 정치적 패권을 위해 한 개인에 대한 인물중심으로 NU와 무함마디야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2004년 선거는 종교적 노선보단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도 동시에 강조함으로 인해 각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전형적인 정치적 패권 위

주의 선거였다. NU의장인 무자디와 부의장인 와히드가 각각 메가와 띠티와 위란또 대통령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부통령으로 입후보한 반면에, 무함마디아의 아민 라이스는 대통령으로 입후보하였지만 모두가 그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모두 실용주의보다는 이데올로기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대통령 선출시와는 그 양상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 정당만으론 승리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NU와 무함마디야를 기초로 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 역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도모하거나 비정당 인물과의 연합을 통해서 러닝메이트간에는 승리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상대후보자들과는 철저한 경쟁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선거는 정치의 속성인 권력배분을 위해 각각 연합하여 정당후보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각 지역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의 이면에는 금권정치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선거행태는 보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 조직이 모두 내부분열로 인한 표의 분산, 성별의 이슈화, 금권정치, 이데올로기, 시간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에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여 정치에 참여한 양 조직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상이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다수의 득표를 위해 결성된 상이한 집단간의 연합 즉, 이슬람집단과 민족주의 집단간의 연합을 이루었지만 러닝메이트의 비 이슬람적인 성격에 대한 의구심, 여성의 지도력은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배치된다는 해석상의 차이점,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간의 갈등 등이 한계점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 2004년 선거 역시 입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인물 중심으로 조직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패권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상기에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슬람 조직, 특히 NU와 무함마디야가 양 조직이 하나로 연합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양 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종교와 도덕적인 우위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양대 조직 모두 이슬람사회를 대변해온 조직으로서 앞으로도 종교,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는 종교압력단체로서의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지만 각 무슬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철저한 경쟁상대로서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주제어 : 대통령선거, 이슬람, 실용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 Chaidar, Al. 1999. *Pemilu 1999: Pertarungan Ideologis Partai-partai Islam Versus Partai-partai Sekules*. Jakarta: Darul Falah.
- Feith, Herbert. 1963. "Dynamics of Guided Democracy." In Ruth T. McVey. (ed.). *Indonesia*. New Haven: HRAF Press.
- _____. 1957. *The Indonesian Elections of 1955*. Ithaca: Cornell University.
- Ghazali, Abd. Rohim. 2005. "Khittah Muhammadiyah Digugat." In Pakkanna, Mukhaer and Achmad, Nur(eds.). *Muhammadiyah Menjemput Perubahan*. 247-248. Jakarta: P3SE STIE Ahmad Dahlan Jakarta dan Kompas.
- Hakim, Sudarnoto Abdul. 2005. "Memperbarui Pembaruan

- Muhammadiyah.” In Pakkanna. *Mukhaer and Achmad, Nur(eds.)*. 243.
- Jass, Maryogi. 2005. “Muhammadiyah dan Politik: Dilema Khittah Muhammadiyah.” In Pakkanna, *Mukhaer and Achmad, Nur(eds.)*. 255-257.
- Komisi Pemilihan Umum. 2000. *Pemilu 1999 Dalam Angka*. Jakarta: KPU.
- _____. 2000. *Pemilu Indonesia dalam Angka dan Fakta, tahun 1955-1999*. Jakarta: BHKPU.
- Kompas. 1999. *Partai Partai Politik Indonesia*, Jakarta: Kompas.
- Kompas* 2004/03/16; 2004/03/22; 2004/03/23; 2004/04/28; 2004/05/10; 2004/06/09; 2004/08/07; 2004/09/08.
- Koran Tempo* 2004/06/04; 2004/08/07; 2004/09/02.
- Legowo, TA. et el.(eds.). 2004. *Pemilihan Presiden Secara Langsung 2004: Dokumentasi, Analisis dan Kritik*. Jakarta: Kedepuitan Dinamika Masyarakat Menristek RI.
- McVey, Ruth T. 1984. "Faith as the Outsider: Islam in Indonesian Politics." In James P.Piscatori(ed.). *Islam in the Political Proces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dia Indonesia* 2004/04/24; 2004/04/26; 2004/07/02.
- Nashir, Haedar. 2000. *Dinamika Politik Muhammadiyah*. Yogyakarta: CV.Adipura.
- Pakkanna, Mukhaer and Achmad, Nur(eds.). 2005. *Muhammadiyah Menjemput Perubahan*. Jakarta: P3SE STIE Ahmad Dahlan, Kompas.
- Panitia Pengawas Pemilihan Umum. 2003. *Keputusan Panitia Pengawas Pemilu Nomor 26 tahun 2003*. Jakarta: Sekretariat

- Panwas Pemilu.
_____. 2003. *Kumpulan Peraturan Pengawasan Pemilu 2004*, Jakarta: Sekretariat Panwas Pemilu.
_____. 2004. *Melapor ke Pengawas Pemilu*. Jakarta: Sekretariat Panwas Pemilu.
- PBNU. 2000. *Hasil-hasil Muktamar XXX Nahdlatul Ulama*. Jakarta: Sekjen PBNU).
- Republika* 2004/6/12; 2004/06/17; 2004/07/07; 2004/07/12; 2004/08/19.
- Samson, Allan A. 1968. "Islam in Indonesian Politics." *Asian Survey* 8(13): 1001.
- Sekretariat DPP PKB. 2000. *Hasil Musyawarah Kerja Nasional II PKB*. Jakarta: DPP PKB.
- Suara Karya* 2004/04/29; 2004/05/12; 2004/09/08; 2004/08/10; 2004/08/26.
- Suara Pembaruan* 2004/05/27; 2004/07/05; 2004/08/29; 2004/08/07; 2004/08/31; 2004/09/09; 2004/09/14.
- Suharsono. 1999. *Cemerlangnya Poros Tengah*. Jakarta: Perennial Press.
- Yunus, H. Mahmud. 1993. *Tafsir Quran Karim*. Jakarta: Hidakarya Agung.
- Tempo* 1998/11/16.
- <http://dpp-pni.tripod.com/>
- http://www.kpu.go.id/partai_partai/nourut.php

면담자료

Agus Miftach. 인도네시아 국민당(Partai Rakyat Indonesia)총재
(2001/06/04)

Iwan Badillah. 무함마디야 총회 서기(2006/07/01).

Muchit Muzadi. NU총회 자문위원(2001/06/08)

Abstract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f Islamic
Organizations in the Present Indonesia's
Election Politics:

Nahdlatul Ulama and Muhammadiyah

Kang Young-Soon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f the Islamic organizations in the present Indonesia's electoral politics, between Nahdlatul Ulama(NU) and Muhammadiyah. They are huge Islamic organizations in Indonesia, which played par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9 and 2004. NU and Muhammadiyah formed themselves in reform period and spoke the interests of the muslim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They showed mutual cooperation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9. At that time, Amien Rais in Partai Amanat Nasional(PAN), a party of Muhammadiyah, was elected as a chairman of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 Then, Muhammadiyah catechized the cooperation, to have Abdurrahman Wahid, a chairman of NU, as the president through PAN's positive lobby with NU and several parties. As

the result, the 1999's election showed the possibility to speak for the interests of muslim community and its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fact, that election was remarkably presided by Islamic ideology and Islamic leaders.

On the other hand, NU and Muhammadiyah ran for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of 2004– which was in force for the first time in Indonesia history. They emphasized democracy, welfare, Islamic ideology, and pragmatism with their partner. But it's take precedence for ideology than pragmatism. Even though Hasim Muzadi, a chairman of NU, became a partner with Megawati, and Salafuddin Wahid, one of vice-chairmans, became a partner with Wiranto as vice president candidates, and Amien Rais, the president PAN of Muhammadiyah,, run for election to the president Inonesia, but they were not to able to achieve their ideals. It was due to disruption, gender problem, money politics, discrepancy in ideology, lack of time for preparation, etc. Though these two organizations may cooperate together for the religion, social, and democracy, however they would still remain as competitive rivals, when it comes to the role for the interests of muslim community.

Key words: Presidential Election, Islam, Pragmatism, Gender, Ideology.